

사전 투표 호남·영남 큰 차이… 본 투표까지 이어질까 관심

호남, 내란 심판론에 초반부터 강하게 결집…투표율 끌어올려
영남, 단일화 실패에 실망감… ‘사전투표=부정선거’ 믿음 큰 탓

21대 대선 사전투표 결과 영·호남간 투표율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이 수치가 본 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남의 경우 역대 최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영남은 과거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전 투표를 결과만 놓고 봤을때 강화된 진보 결집 현상과 느슨해진 보수 결집이 본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석이 분분하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치러진 사전 투표결과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각각 52.12%, 56.5%를 기록했다.

전북도 53.01%를 기록, 세 지역은 전국 평균인 34.74%를 상회함은 물론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이었던 48.72%(광주), 51.45%(전남), 48.63%(전북)를 넘어섬여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영남의 사전 투표율은 대구 25.63%, 경북 31.52%, 경남 31.7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세 지역 모두 20대 대선 사전 투표때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구 8.28%p ↓·경북 9.5%p ↓·경남 5.2%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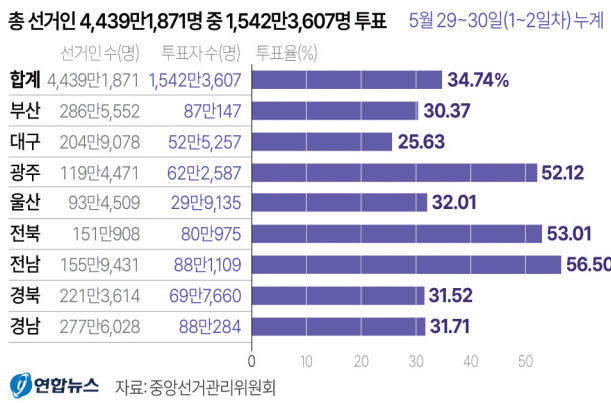
이번 사전 투표 기간 최고 투표율을 보인 지역인 전남과 최저 투표율 지역인 대구의 차이는 25.72%로 대구 사전 투표율의 2배에 달했다. 20대 대선에서 두 지역의 사전 투표율 차(7.28%포인트)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호남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른바 ‘진보의 결집’이 있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이번 대선의 지향점으로 ‘게임 트라우마’를 소환한 윤석열 정권을 향한 ‘내란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사전 투표부터 강하게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유세기간 줄곧 ‘내란 종식’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바 있다. 결국 내란 심판에 대한 호남 민심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영남은 사전 투표를 선호하지 않은 지역 유권자의 특성도 낮은 사전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지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물거품이 됐

2025대선 지역별 사전투표율



고, 앞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른바 ‘보수 빅텐트론’이 실패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면서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부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믿음이 큰 탓에 가뜰이나 열세로 예측되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남권 유권자가 적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 각 정당들은 본 투표에서 각 지역의 최종 투표율이 어디까지 오르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선대위 조직 부분부장은 “호남지역의 높은 사전 투표율이 출향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본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본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승리 때도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가 본 투표에 영향을 미쳤듯, 이러한 호남 열망으로 목표 달성(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은 “부·울·경(PK) 지역 같은 경우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지역이지만, 아직 결집이 다 됐다고 보지 않는다. 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사전투표 중간에 생긴 이 후보의 부정적 이슈 때문에 이미 이 후보를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한다. 네거티브보다 후보를 알리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울산 유세장에 몰려든 인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막바지 ‘힘지 공략’에 나선 1일 울산광역시 일산해수욕장 앞에서 두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내란 심판” … 김문수 “반 이재명”

대선 주자들 막판 득표전

국힘 단일화 카드 끝내 무산

대선 주자들이 21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막판 득표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말미암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내란 심판’ 구호를 선거 막판까지 앞세우고 있다. 자칫 ‘대세론’에 젖어 느슨해질 수 있는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코스피 5,000 달성” 등 민생·경제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엄,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유권자에 정치적 피로감을 줬다는 판단 속에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를 강조하는 한편, ‘준비된 지도자’ 면모를 부각해 자신을 집중 견제하는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포석이 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反)이재명’ 기치

를 전면에 내걸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끌어안기 총력전에 나섰다.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 조명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방탄 괴물 독재 국가”, “총통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독재 저지’ 구호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성세대 정치인과 차별화한 젊음을 앞세운 ‘40대 기수론’으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각각 ‘환란 세력’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양당 정치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

각 후보와 캠프의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검증과 반박이 쉽지 않은 단기전의 속성상 상대의 득표력에 타격을 주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해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재현해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을 고리로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불리한 구도를 뒤집을 카드로 꺼낸 ‘빅텐트’는 끝내 무산됐다. 빅텐트의 핵심축으로 여겨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아닌 원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호소하며 보수진영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는 구호를 통해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사표심리’를 자극하고, 보수 분열의 패배 책임이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일부 부실 관리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1일 “지난(대선) 사전투표 날(29~30일)에 있었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발생한 지난 29일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로 “책임은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선관위 원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사과한 것이다.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배우자 대리투표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관위 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